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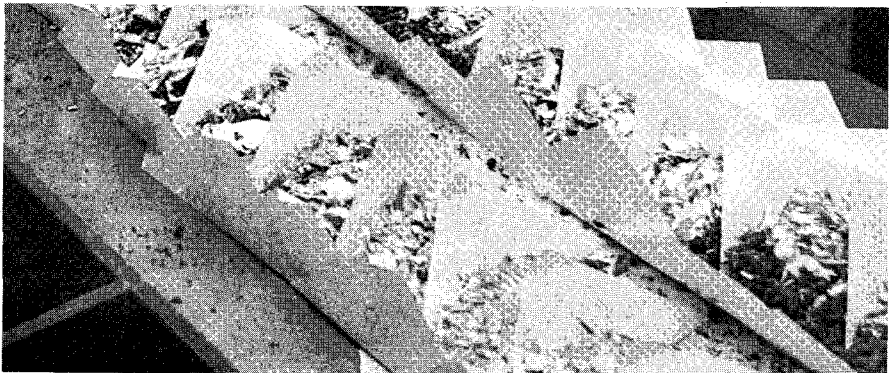
상식이 의학적으로는 무식

최 병 휘/중앙대 의대 교수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하며,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하는 일들 중에는 도리어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즉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다.

우리가 건강식품 또는 자연식품이라는 것들에서 그러한 일들이 흔히 벌어진다. 우리가 말하는 자연식품들이 그러하며, 건강식품들이 마치 의약품이나 되듯이 선전되고 사용하는 예가 적지않다. 이들 중에는 제대로 위생처리나 보사부 등의 국가기관에서 정식인가를 받지 못한 영세업체들이 많으므로 그 자체가 비

위생적이며, 불량식품일 수가 있다. 우리 선조들은 무공해시대에 살았지만 현재의 우리들보다 훨씬 짧은 평균 수명을 살았다. 그러므로 이런 사탕발림같은 단순한 논리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이들이 선전하는 것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마치 대단한 생활의 지혜나 의학적인 발전이나 되는 듯이 떠벌이고 과장하여 일반인들, 즉 의학적으로 문외한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만병통치약이며, 모든 의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신체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유기체로 이루어졌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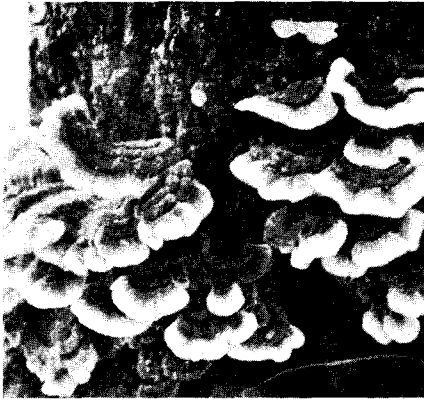


“
 폐결핵환자들에서 개소주를 먹거나, 한약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많은 환자들에서
 결핵약제의 부작용을 증가시켜서 고생하는 예가
 많다. 한약을 잘 선택하여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이것으로
 충분한 치료를 했다고 할 수는 없다.
 ”

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신체의 일
 부나 어느 장기를 독립적으로 한 두 마
 디로 딱 부러지게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이 많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특히 의약품의 경우는 우리가 기대
 하는 약효의 이면에 숨어 있는 부작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더우기 치료를 받는다
 는 것은 어딘가가 병이 있는 것이므로
 정상인보다 훨씬 더 충분한 고려를 하여
 야 하는 것이다. 현대의학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 방법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현재 우리 인
 간에게 주어진 과학이라는 논리적인 사
 고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즉 현대
 의학은 현대과학을 기초로 하여 정립되
 었는데, 현대과학은 통계와 확률을 토대
 로하여 옳고 그름을 판정한다. 물론 통
 계와 확률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
 며, 동양적인 기라든지, 어떤 감이라든
 지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부정하지는 않
 는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최상의 지
 식으로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
 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람은 몸이 확실하게 나쁘면, 즉 병
 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의사라고 하

는 전문인을 찾아간다. 그러므로 건강을
 위한다는 일이 도리어 건강을 해치는 빈
 도는 질병이 있을 때보다는 건강을 유지
 내지는 보강한다는 일들에서 훨씬 많이
 빈번하다. 즉 몸의 상태가 특별히 꼬집
 어 내기 어렵게 불편한 경우에 흔히 벌
 어진다. 본인 스스로가 나태하거나, 소
 홀히하여 나빠졌다는 생각은 하지않고
 외부로 핑계를 돌리고, 회피하려는 탓
 이다. 동무 이제마(東武 李濟馬) 선생께
 서 장부의 허실에 따라 동양의학에서는
 체질론이 나왔다. 그리고 최근 서양의학
 이 발달되면서 우연히 혈액중의 수소이
 온 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서양
 의학을 배운 나로서는 알지도 못하는 체
 질론이 나오고 있다. 즉 인체에서 혈액
 의 수소이온의 농도(산도)에 따라 산성
 체질 혹은 알칼리성체질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이런 분류가 옳은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접목은 조금 지
 나친 표현인지는 모르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학문적인 체계가 시작
 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동양의학에
 서 말하는 오장육부는 서양의학에서 말
 하는 단순한 기질적인 장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서로 자기의



“
 의학적으로 문외한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만병통치약이며,
 모든 의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입장에서 해석하므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문학책을 과학적인 사고로 해석해서는 문학책이 될 수 없으며, 심지어는 오류 투성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과학책도 읽고 문학책도 읽고 있듯이 동양 의학은 동양의학의 눈으로, 서양의학은 서양의학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더우기 이 체질론에 덧붙여서 산성체질이면 질병이 잘 생긴다느니,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말은 더욱 올바른 논리라고 말할 수 없다. 알레르기란 동양의학에서는 있지도 않는 질병이며, 원인보다는 결과를 가지고 유추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은 여러가지 상태에 따라 순간, 순간 변화를 하며 대응을 하여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산도의 성을 유지하는 인체의 방어기전이며, 결과이다. 혈액은 이것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성체질에서 알칼리성체질로 바꾼다는 논리는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몸의 어떤 상태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의 체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또는 어느 기간동안 달라지

는 것이며, 가역적인 것으로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즉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연습을 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향상될 수 있듯이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유전적인 소인 즉 동양적으로 체질에 의한 한계가 있듯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체질을 능가할 수는 없다. 또한 그가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다시 달리기를 잘 못하게 될 것이다.

결핵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질환으로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좀 더 올바른 치료를 받았다면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그 이유는 결핵은 올바른 치료만 받으면 거의 100%에 가까운 완치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일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의 결핵치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수준이하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본인이 호흡기를 하는 의사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폐결핵의 치료에 있어서 전혀 생각하

지 못한 여러가지의 문제들을 당하게 된다. 물론 장병에 효자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같이 생각되는데, 너무도 흔히 우리들이 접하게 되면서 또 감기나 위경련같이 금방 치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가지의 실수가 벌어진다. 물론 고의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아니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였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처방을 권장하여 어떤 사고가 저질러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귀엽고도 어른들로서 문외한이면 문외한답게 행동을 해야 한다.

한약으로 늑막을 말린다고하여 결핵약을 안먹은 환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상당한 수에서는 병을 악화시키거나, 올바른 결핵약으로 치료한 경우보다 더 심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경우를 가깝보게 된다. 또한 폐결핵환자에서 개소주를 먹거나, 한약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많은 환자들에서 결핵약제의 부작용을 증가시켜서 고생하는 예가 많다. 한약을 잘 선택하여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것으로 충분한 치료를 했다고 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최선의 치료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서양의사 역시 사람이므로 항상 완전하고 올바른 치료만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를 받게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사용해도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한약은 직접적으로 원인적인 치료제보다는 보조적인 기능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양약에서도 상당한 수에서 보조적으로 작용하지만, 원인적인 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또한

양약에서는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지 않으면 사용을 불가한다. 앞에서도 한 말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라는 것이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엄격한 판정과정을 거쳐서 사용이 시도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양의학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대부분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전수된 것들이 많으므로 전혀 틀렸다는 것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편협된 결과가 많으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시도하고 있듯이 좀 더 광범위하게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어떤 제한된 상황이 아닌 연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정확한 처리가 필요하겠다. 사실 서양의학이라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만들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여 그 결과를 통계 등을 이용하여 객관적인 처리를 엄격히 하였기에 오늘의 서양의학이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동양의학은 신비한 감에서 오는 신선한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서양의학은 우리가 알고있는 대부분의 병들에서 체력을 보강하는 등의 비특이적이며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원인에 작용하는 치료법들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감염성질환은 더욱 그러하다. 물론 감염성질환이라고 하여도 항생제만으로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하며 인간의 자연치유력과 협력하여 박멸하게 된다. 더 확실한 치료가 있는데, 사탕발림같은 소리에 현혹되어 화를 자초하게 된다. †